

사례로 본 주부 재취업의 높은 벽

기혼여성 인력활용 뒷받침할 가족정책 절실히

일반적인 취업도 바늘구멍 뚫기인 현실에서 주부들의 재취업은 더 없이 힘들기만 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주부들의 취업욕구가 높고 취업한 주부들도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손세권 외, <1991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주부들은 육아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취업으로 인한 지출비용과 수입이 안맞아서, 또는 근본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재취업을 하기가 힘들다.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이 직접 겪는 체험담을 모아 봤다. <편집자주>

니가 크게 반대했다. 어머니는 외손녀를 맡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런날까지 예상했다”며 “다른 일로 옮기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집안에 들어왔기 위해 그만두는 것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 들어왔으면 다시 일하기가 힘들다.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환상이다. 집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돈 생각은 하지 말고 다녀라. 그 돈은 너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라. 일단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철저히 너의 거름이 되고 싶다.”

박진수 씨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는 새롭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씀이 고맙다 못해 버거운 기대라는 부담감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박씨가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은 어머니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사회에서 자기일을 잘 지켜나

가는 일 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면서도 계속 손주 기르기를 맡아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에게 자기일을 갖는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상으로 중요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도 박진수 씨는 지금의 직장생활이 짜증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남자, 학창시절 때 자기보다 우수하지 못했던 남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제

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참함이 느껴진다.

이것이 이 사회에서 여자들이 차지해야 하는 위치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의 생활을 참으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 직장생활을 그만두려 했던 경우

어머니의 헌신으로 계속하기로

박진수/31, 잡지사 편집부

박진수(31) 씨는 16개월 된 딸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박 씨의 직장생활 경력은 7년이지만 월급은 5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육아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큰 적자는 아니지

만 용돈조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직장생활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하거니와 본인도 힘들고 의욕도 없어서 늘 갈등해왔다. 최근 박씨는 직장을 그만두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박씨의 어머

■ 취업에 성공한 경우

8년 공백 끝에 재취업, 야근이 가장 고민

이귀은/34,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간 컴퓨터프로그래머를 하다가 결혼했다. 아이가 갓난 아기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직장을 찾았다.

전문직이라 일자리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포기해야 했다. 아이가 어려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처음 한두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길 바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3년쯤 같은 이유에서 취업을 포기했다.

아이가 다섯살 될 무렵부터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섯곳 일할 곳이 나서지 않았다. 평소 소비자 운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소비자 단체를 찾아가 통계처리를 자원봉사했다. 전산 시스템도 없는 곳이고 간단한 통계처리를

봐주었기 때문에 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쯤 되는 이 자원봉사기간을 직장을 알아보고 잊어버린 기술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도기적 적응 기간으로 활용했다.

지금은 기혼여성인력을 활용해보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조그만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영원한 부담’인 아이 문제는 아래집에 부탁해 해결했다. 아이 양육비에 20만원 정도가 쓰인다. 내가 받는 보수는 60만원 선이니, 경제적으로는 손해는 아닌 정도이다. 그러나 아이 문제로 늘 마음이 불안하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대인관계와 근무시간 문제이다. 8년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보다 6~7세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다. 쉬지 않고 일한 내 동년배는 지금 과장에서 차장 선까지 승진해 있다.

또 컴퓨터 업계에서는 아직 까지도 야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다. 나는 되도록 정시에 퇴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마찰이 생기곤 한다. 아이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야근을 못하게 된다. 한달에 몇번씩은 9시 정도까지 야근할 일이 생긴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만 남편이 먼저 퇴근해 있으면 미안하고 불안하다. 이것은 내 수입이 많아져도 계속될 문제인 것 같다.

팔고 상인은 상품을 판다. 파는 내용이 다를 뿐 모든 게 파는 것이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채용됐다.”

나를 포함해 3차 면접까지 통과한 주부사원들에게 맡겨진 일은 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파는 텔레마케팅이었다. 고정월급은 60만원이지만 근무도중 떠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해고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야 이 회사가 주부들의 취업욕구를 이용해 기만적인 고용광고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

28만원이나 하는 고가품을

어떻게 전화로 판매할 수 있겠으며 아무리 승진이 빠르다고 해도 주부가 이 비싼 물건을 꾸준히 팔아가면서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첫달에야 인맥을 동원해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다. 근무시간에 떠드는 사람에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저조해지는 주부사원을 임의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장치일 것이다.

도대체 주부를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로 보길래 이런 고용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기만당한 것이 너무 분했다.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그 회사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세번의 시험을 치르느라 2주의 시간이 지났다. 1차, 2차에 불게 되자 가족들은 더욱 격려해주었다. 이 가족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취직자리를 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졌다.

함께 3차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있었다. 이런 분들의 좌절과 상처는 나보다 더 클 것이다. 주부 인력을 기만적으로 모집해 1회용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 관행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 취업을 포기한 경우

시간, 수입 맞지않아 포기

김명수/42, 주부

김명수(42) 씨는 남편의 유학생활로 미국에서 10여년 이상을 생활하다 몇년전에 귀국했다. 현재 남편은 지방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서 어학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재취업을 하려고 했던 김명수 씨는 시간, 수입 모든 면에서 “맞지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서 구한 첫 직장은 파트타임의 어학학원 강사였다. 보수는 1시간당 1만원에서 1만7천원선, 주 12시간을 일했으므로 30~40만원의 월 수입이 있었다.

중학교 1년과 9세의 두아이가 있는 김명수 씨는 취업을 위해 일할 사람을 두어야 하는데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일주일에 파출부를 나홀로 쓸 경우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 30~40만원이 들고 옷은 아예 안입는다고 쳐도 교통비 등의 필수경비를 계산하면 70만원 정도가 있어야 최소한의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씨의 계산.

돈도 돈이려니와 풀타임 직장엔 나갈 경우 7시50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어린 아이를 혼자 남겨둘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일찍부터 파출부를 구하기가 어렵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 파트타임 강사생활이라 해도 강의 준비를 하려면 집안일과 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명수 씨는 자원봉사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미국에서 자원봉사생활을 했을 때는

그것이 경력으로 계산돼 곧 취업으로 연결됐으므로 그 기간이 낭비가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섯곳 내키지가 않는다. 주부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를 전생태의 보병 같은 역할 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상당히 회의적이라 한다.

도무지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부의 재취업은 여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처럼 돼 버릴 뿐이다.

김명수 씨는 영어가 자유롭고 석사학위까지 있는 엘리트로 사회적인 역할 맡아 기여하고 싶지만 우리 사회는 김 씨의 새로운 시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다.

■ 취업에 실패한 경우

주부사원 모집광고에 속아 좌절감만

정미진/26, 주부

S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아이가 2세가 되면서 취직을 하려고 알아보았다. 물론 오라는 데는 없었다. 신문 구인광고를 뒤지다가 ‘주부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서류를 냈다.

1차 서류전형, 2차, 3차는 면접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였다. 서류전형에 통과해

2차 면접에 갔을 때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 회사 인사담당 직원이 상냥하게 “교육학과를 나왔으니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다. 마치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2차 면접에서도 담당직원은 “절대 세일즈는 아니다”고 강조해 응시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3차 면접에 가니 이 회사에서 찾는 주부사원은 1월에 28만원짜리 유아용교재 세트를 파는 일이라는 게 밝혀졌다. “절대 세일즈는 아니다”고 했던 직원은 태도를 1백80도 바꿔 세일즈 찬미론을 폈다.

“이 세상에 파는 것 아닌게 어디 있느냐? 교사는 지식을